

인수위 지역발전특위, 광주 GGM·전남 해상풍력 등 방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오정근 간사 등 소속 위원들이 16일 오후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방문해 양산 1호 차인 캐스퍼 앞에서 문영훈 광주시장 권행대행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회 광주·전남지역 현안을 직접 듣기 위해 16일 전남 신안·영광 해상과 광주 지역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광주·전남 현장 방문에는 특위 오정근 간사를 비롯, 김재구·변정섭·박기관·이기우 위원, 정연승 기획위원, 이영달 자문위원, 유상희 교수, 장능인 대변인 등 모두 10명이 참석했다.

일행은 이날 오후 빛그린산단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친환경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등을 잇따라 찾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인수위원들은 첫 번째 광주 일정으로 전국 최초의 상생형일자리 모델 성공사례인 GGM을 방문, 공장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문영훈 시장 권한대행 등이 함께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시는 GGM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광주시,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지원 등 주요 건의 전남도,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등 요청

위한 장기 주거 대책 마련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조성이 가능토록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 광주형일자리 공동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브랜드의 완성차 공장을 보유한 자동차 도시 광주가 향후에도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광주형 일자리 시즌2' 국정과제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후 인수위원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청년단체 등 시민들과 만나 지역의 관심사인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한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원원할 수 있는 상생형 복합쇼핑몰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인수위원들에게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공공형 이전 국가사업화 등 지역발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와 ▲서울~광주와 광주~부산을 2시간 후반대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확충 ▲광주 송정역 복합역사 건립 등 5개 현안 과제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재차 요청했다. 문 권한대행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인수위원들과 시제안 과제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마지막까지 지역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위원들은 광주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부터 전남 신안과 영광을 찾아 해상풍력의 필요성과 진행상황을 직접 살폈다. 인수위의 이번 일정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는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앞으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는 인수위에 국정과제로 건의한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목포신항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위는 첫 일정으로 신안 자은도 해역에 위치한 SK E&S 해상풍력발전단지 현장을 시찰했다. SK E&S 발전단지는 전남도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남형 상생일자리'로 추진하는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선도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첫 착공을 앞두고 있다.

이어 산학연이 협력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두산중공업 해상풍력 8MW급 터빈 실증단지를 찾았다. 지난 1월 국내 최대 규모 터빈이 설치된 이 곳에서 특위 위원들은 기업인과 국내 기술개발 방향에 대해 소통했다. 특위 위원들은 "해상풍력을 통해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신산업 육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연관기업을 육성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상풍력의 핵심은 새로운 지역일자리 창출에 있고, 새정부 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균형발전전략으로 제시한 새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해상풍력을 전남의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 해상에는 계획용량 30GW 규모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4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450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12만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안 8.2GW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상풍력을 통해 조선·기계 등 기존 지역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전남의 확실한 먹거리산업으로 키워나가는 구상이다. 김재환기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한다

전남사회서비스원, 근로여건 개선·돌봄공백 해소 온힘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 결원 시 인력을 파견하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사자당 파견 지원 일수는 최대 7일이다.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결원 유형은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유급병가, 장기근속 휴

가, 자녀 돌봄휴가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과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돌봄 공백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사 7명을 채용했다. 더 많은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16명의 신규 직원 추가 채용을

진행 중이다. 채용과 관련한 내용은 전남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 클린아이, 전남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대체인력지원사업과 연계해 긴급돌봄사업, 종합재가센터 운영 등 전남도민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061-277-9838)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민주 광주시장 경선, 이번주 초반 분수령

국힘 주기환 내일 출마선언

이용섭 광주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간 리턴매치가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은 TV토론회가 두차례나 예정돼 있는 등 이번주가 승부를 가를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이용섭·강기정 예비후보가 4년만에 재대결한다. 이번 경선은 지난 2018년 3차 대결(이용섭 강기정 양향자) 구도로 치러졌던 것과 달리,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4년전 탈당 전력으로 10% 갑산 페널티를 받았던 이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페널티가 없어 두 후보간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주는 회피 논란이 있었던 TV토론회가 예정돼 경선전의 초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현재 TV토론회는 오는 19일과 21일 예정돼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점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두 후보는 초반 기선잡기를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슬비기자

두 후보간 TV토론회 참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상황이 라 토론회의 열기는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광주시장 경선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은 다음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강 예비후보측은 경선 일정에 맞춰 선거 전략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주기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이 지난 14일 광주시장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주 예비후보는 오는 19일 오전 11일 광주 북구 첨단광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광주시장 출마선언을 한다. 정의당은 장원주 광주시의원, 진보당은 김주엽 광주시장위원장, 기본소득당은 문현철 공동위원장이 각각 표방같이 나서고 있다. 이슬비기자

'공천 배제' 김산 무안군수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 강행

"명확 해명 없이 재심 기각...수용 못해" 오늘 기자회견 갖고 민주당 탈당 선언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배제된 김산 무안군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 김산 예비후보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무안읍 불무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16

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민주당 무안군수 경선 후보 배제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고 인내하며 기다렸으나 공관위가 명확한 해명도 없이 기각했다"며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천과정에서 제기된 음해성 투서 내용에 직접 관련된 바가 없는데도 차명 부동산 투기의혹 보도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개혁공천을 방해해 현역 단체장 탈락 숫자를 정해 놓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 압도적 1위 후보인 김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잠시 떠나 무소속 군민후보로 나서 당당히 군민들의 선택을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안=이기성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2-단3329
사망자 망 변이례 (340130-2661721)
사망일자 2022년 02월 12일
위 망 변이례의 사망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 1028조에 근거하여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22.04.12. 한정승인신고를 수리받았으므로 이에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재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04월 18일
공고인 최기열
한정승인 수리일 : 2022년 04월 12일
신고처 : 최기열 010-8389-0404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0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5분기 고소득층 240,833원 (1.7배)
4분기 125,531원 (2.1배)
3분기 78,147원 (2.7배)
2분기 48,103원 (5.3배)
1분기 저소득층 26,697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국회연락처 1277-1000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연립은행재단 Korea Penetration Fund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많은 근무시간에 야근 이후에는 생활 속의 위기를 살신으로 기함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진다.
국민이여! 남아서 지치지 말고 쉬세요!
국민연립은행재단